

참여자치 확산...읍장·동장도 주민들이 뽑는다

강진군·광산구서 첫 시도...전국 기초단체 본보기

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군수와 구청장이 임명했던 읍장과 동장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막강한 인사권을 가진 기초단체장이 주민대표에게 추천 권한을 주고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주민 자치의 범위를 읍과 동 단위까지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첫 시도된 것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본보기가 될 가능성도 높다.

강진군이 마을 이장들의 손으로 1만 6000여명의 읍민을 이끌 강진읍장을 추천하도록 했다. 25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강진읍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읍내 마을이장 38명이 강진읍을 이

끌어 갈 읍장을 추천하는 회의를 가졌다.

강진군이 이장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한 것은 30년 이상 근무한 경력과 능력을 두루 갖춘 공직자들이 읍장 자리를 희망하면서 경쟁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군은 희망 사무관(6급)들이 발전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장들이 함께 일할 일꾼을 선택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도입했다. 마을대표성이 강한 이장들에게 사실상 인사권을 일임한 것이다.

이들 이장단 앞에서 읍장을 희망하는 3명의 사무관들은 각자의 정견발표를 통해 쓰레기 수거와 청소 대책, 노인복지, 시가지 간판정비, 꽃길조성 등 오랜 행정경험에서 나온 강진읍 발전 시책을 내놓았다.

▶전남 강진군 강진읍장 후보 사무관들 정견 발표 이장 38명 회의 통해 추천

▶광주 수완동장·송정1동장 주민 선거인단이 투표 동장 후보 2명 추천해 임명

강진원 강진군수는 “주민들을 대표해 이장단이 읍장을 뽑는 직접 민주주의로 읍장도 보다 책임과 의지를 가지고 지역발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12월 말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는 강진군

은 내년 6월 사무관 승진예정자를 앞둔 승진 대상자에 포함시켜 사무관 장기교육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등 ‘새다름’ 인사제도를 잇따라 도입해 주목을 받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에서는 지난 8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들이 동장 후보를 선출했다.

광산구는 주민회의에서 추천한 5급 사무관 2명 가운데 1명을 4급 동장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수완동 동장, 주민자치위원, 각계 대표 등 191명이 투표에 참여하는 ‘수완동장 추천 주민회의’를 열어 4명의 동장 후보 가운데 2명을 수완동장 최종 후보로 뽑은 것이다. 광산구는 주민회의 선거인단이 뽑은 2명을 인사위원회에 추천해 수완동장을 최종 임명했다.

송정1동 역시 지난 8월 기관·사회단체 대표 19명으로 구성된 ‘송정1동장 선별 심의회의’ 회의를 열고 동장 후보를 광산구에 추천했다. 수완동과 같이 5급 사무관들을 대상으로 송정1동장 직위공모제를 실시하고, 송정1동 기관·사회단체장으로 동장 추천 심의회의에서 적임자를 구에 추천하도록 한 것이다.

이들 주민 추천 동장들은 취임 후 자신을 추천해 준 주민들과 협의하며 성공적으로 동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동장 선정에 주민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시도로, 이번 모델을 잘 다듬어 구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강진=남철희기자 chou@kwangju.co.kr

현재 중3부터 수능영어 절대평가 교육부, 등급만 표시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상대평가 방식의 수능체제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관련기사 7면> 교육부는 25일 과도한 학습부담을 줄이고 학교 영어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2018학년도 수능부터 영어영역에 절대평가를 도입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수능 성적표도 ‘등급·표준점수·백분위’로 제공되던 것이, 2018학년도부터 영어는 ‘등급만’ 표시된다.

현재 수능은 상대평가 9등급제로 ‘상위 4%까지 1등급, 11%까지 2등급...’식으로 상대적 위치에 따라 등급을 받는다. 높은 점수를 받아도 고득점 학생들이 많으면 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절대평가로 바뀌면 일정한 점수만 받으면 해당 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90점 이상이면 A등급, 80점 이상이면 B등급...’식이다.

아직 구체적인 등급 개수는 확정되지 않았다. 9등급으로 할지, 4~5등급으로 할지, 또 등급분할 방식을 고정분할(일정 점수 이상이면 등급 부여)로 할지, 준거설정(난이도·정답률 등에 따라 준거 설정)으로 할지 등도 정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수능 영어의 등급 결정 방식을 내년 상반기 중 수능 개선안과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 상황을 반영해 세부안을 마련한 뒤 8월 ‘2018학년도 대입 전형 기본사항’ 발표 때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옛 도청 분수대 지하 활용방안



30m



▲ 현재 -1098㎡ 거대한 휴기등으로 금남지하사가 활성화에 발목

개선방안



▲ 분수대 밑 휴기등제거로 생긴 공간 ‘아고라(광장)’ 활용

- 지하1~2층 복층구조 (문화전당 입주자가 작품발표 및 문화공연)
- 데크하부의 지하2층에 5·18 역사체험관 조성
- 사업비 57억원 예상

“옛 도청 분수대 밑 ‘시민광장’으로”

방치된 지하사가 공간 ‘문화수도’ 걸맞게 재정비 시급 문화전당·5·18 아우르고 광주만의 이미지 담아내야

개관 8개월여를 앞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분수대 아래의 지하사가 장기간 폐점인 채로 방치, 이 일대가 슬럼화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 지하사가 주변은 문화전당의 지하통로이자 도시철도역의 출입구로서 금남로권역 지하생활 공간의 중심지이다.

여기에 문화전당이 개관할 경우 매달 14만명 가량의 내외국인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분수대 밑의 노후화된 지하사가 관련 공간을 문화중심도시 컨셉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년 동안 지역 문화계와 시민사회, 지하사가 상인들 사이에서는 문화전당과 5·18의 상징 시설물인 분수대를 아우를 수 있는, 광주만의 이미지를 담은 공간을 지하에 구현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오갔다.

문화계는 문화전당 활성화를 위해 지하사가 일대에 문화적 공간조성이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상인들은 지하사가 및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시민사회는 5월 정신에 적합한 소통·화합의 공간 조성을 위해 지하사가에 대한 단장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들은 분수대 바로

밑의 대형 원형기둥 때문에 실행은 고사하고 검토단계에서 폐지되고 말았다.

원형기둥은 직경 30m·면적 1098㎡로 금남 지하사를 ‘금남로구간’과 ‘동구청구간’으로 구분짓는 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구도심이 차츰 활기를 찾아가면서 지하사가 금남로구간은 예전에 비해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기둥에 가로막힌 분수대 밑 동구청구간은 전체 점포의 절반인 50곳이 휴·폐업에 들어간 상태다.

특히 최근 주말이면 일부 공개되는 문화전당의 건물을 둘러보려는 외지 관광객들이 심심치 않게 이곳을 찾고 있지만 슬럼화된 지하사는 광주만의 이미지만 흐리는 흉물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남지하사가 지반 침하·침수사고시 수습을 맡았던 공무원이 당시의 기술적 경험을 바탕으로 분수대 밑 공간 활용방안을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시 문점원(6급·토목직)·김용백(7급·기계직)씨는 최근 광주시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열린 ‘광주시정 제안’ 심사에 ‘(구)전남도청 앞 분수대 하부 휴기등

제거로 열린 공간 창출’이란 아이디어를 공동으로 제출,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최우수(1위) 제안자로 선정됐다.

문씨 등의 제안은 이렇다. 금남지하사가와 문화전당, 도시철도 1호선 문화전당역을 가로막고 있는 지하기둥을 통째로 없애고, 그 자리에 공연이나 토론 등이 가능한 시민 아고라(광장)를 조성하는 것이다. 기둥을 철거하고 조성한 광장은 각종 행사나 공연 등이 가능토록 간단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광주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공간을 덧붙여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분수대 아래 지하사가 공간이 5·18의 역사성을 갖는 점, 시민 공간의 필요성, 문화전당을 찾는 관광객들의 필수 통로, 문화적 이미지 제고의 필요성, 노후 시설 재단장 등의 차원에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문씨 등은 공사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원형기둥을 해체한 공사는 서울 등 타지역에서 이미 수없이 시행한 건축기법”이라며 “기둥 대신 생긴 공간을 시민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정 최우수 제안으로 채택된 만큼 면밀한 검토를 거쳐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영광, 시용후 핵연료 진동 ▶6면



학교설립 60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새로운 모험의 시작

The New GLA-Class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번지 / Tel. 062)226-0001

경부공인표 연비 및 등급 • GLA 200 CDI 2,143cc 1,500kg 7G-DCT 복합연비 16.2km/l (도시연비: 14.3km/l, 고속도로연비: 19.5km/l), 1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20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